

'91 창작춤판

# 한국춤모임 **지**

정말숙의 춤/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김미경의 춤/유다의 선택



1991.4.10 **水** → 4.16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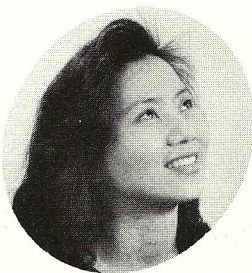
토·일/오후 4:00, 7:00 • 평일/오후 7:00

**도레미문화센터**

806-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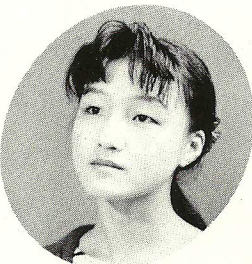
#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안 무 : 정말숙
- 음 악 : 안일웅
- 무대미 술 : 박형석
- 의 상 : 고려사
- 출 연 : 정말숙  
박은정  
전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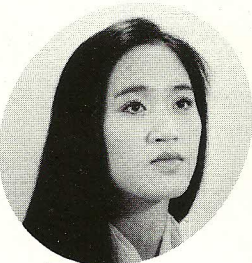
## 정말숙

- 1987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85 부산시립 무용단 단원
- 1986 한국춤모임 「짓」 회원
- 1986 「짓」 창립공연 「얼굴벗기」 출연
- 1986 부산 무대예술제 무용시극 「달동별곡」 참가
- 1990 제12회 서울무용제 「랑겔한스섬...가뭄날의 꿈」 출연
- 1991 현·경혜여자 고등학교 교사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 박은정

- 1991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졸업
- 1990 「짓」 '90 창작출판 「일회용시대」 출연
- 1990 제12회 서울무용제 「랑겔한스섬...가뭄날의 꿈」 출연
- 1991 한국춤모임 「짓」 회원
- 1991 현·창원시립무용단 단원



## 전경아

- 1991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졸업
- 1988 「짓」 김은이 전통출판 출연
- 1991 한국춤모임 「짓」 회원
- 1991 현·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험벗고 零下 十三度  
零下 二十度 地上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 받은 몸으로, 별 받는 목숨으로 起立 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零下에서  
零上으로 零上 五度 零上 十三度 地上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스하도록  
으스스하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황지우 시집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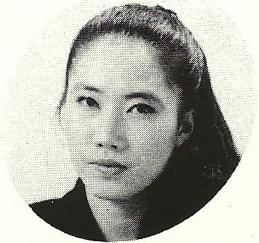
# 유다의 選擇

- 안무 : 김미경
- 음악 : 부산 MBC PD 김옥균 편집
- 무대미술 : 김종호
- 의상 : 고려사
- 출연 : 김미경  
배정현  
김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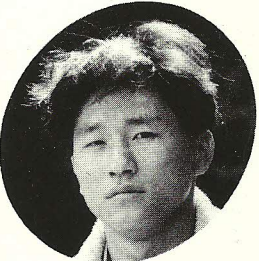
## 김미경

- 1990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졸업
- 1989 '부산여름무용축제' 작품 '왜?' 참가
- 1989 공간무용의 밤 "안무와 즉흥시리즈-89" 출연
- 1990 '90 창작춤관 '짓, 짓, 짓' 출연
- 1990 '90 창작춤관 '유다의 선택' 안무 및 출연
- 1990 제12회 서울무용제 출연
- 1991 대보름맞이 야외공연 참가
- 1991 현·한국춤 모임 '짓' 회원



## 배정현

- 1990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졸업
- 1988 '짓' 김인이 전통춤 출연
- 1989 '부산여름무용축제' 작품 '왜?' 참가
- 1990 '90 창작춤관 '일회용시대' 안무 및 출연
- 1990 '90 창작춤관 '유다의 선택' 출연
- 1990 한국춤모임 '짓' 회원
- 1990 제12회 서울무용제 출연
- 1991 대보름맞이 야외공연 출연
- 1991 현·동아대학교 체육대학원 재학



## 김기표

- 1990 제12회 서울무용제 출연
- 1991 대보름맞이 야외공연 출연
- 1991 현·동아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 1학년재학

1. 나의 가슴속에서 우리네 神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지워져 버린다.  
때론 가슴 한 귀퉁이에 웅하니 비위버리는 듯한 알 수 없는 허전함에 드사이기도 하지만, 반역의 입맞춤과 함께 은30냥으로 당신을 저 갯세마니 동산으로 몰아넣은 유다마냥 어느샌가 나는 '人間'이라는 現實과 거기에 부여된 當爲性의 눈에 젖어 혼자선 더이상 빠져 나올수 없는 植物人間이 되어 버린다.
2. 나의 머리속에선 나만의 神이 만들어진다.  
神에 대한 絶望으로 몸부림치며, 무슨 거룩한 召命이라도 받은것 처럼 새로운 神을 힘들여 만들어 내지만, 결국 나는 설익은 지식과 애매한 관념으로 가장 粗惡한 형태의 無神論을 엮어낼 뿐이다.
3. 다음 날이면 또 다시 나의 가슴속에선 우리네 神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지워져가고, 어김없이 나의 머리속에선 나만의 神을 만들어 낸다.